



걸어서 느끼는 오오노산책



편집 2017년도 미야마목장동아리 교토부립대학 + 세트난대학 합동 팀

이 애플릿에 대하여 2017년 10월 발행

이 리플릿은 미야마목장 학생들이 작성했습니다. 1999년부터 목장 학생들은 카야브키노사토(かやぶきの里)에서 유명한 미야마초우오오노쿠(美山町大野区)구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어 지금은 교토부립대학 학생과 세트난대학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조 건축물을 지역의 사람과 협력하면서 학생이 실제로 작성하여 오오노쿠의 공원을 목질화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오노쿠의 매력을 더 전하고 싶어 이 리플릿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손에 들고 오오노쿠의 매력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Access

대중교통으로 오는 경우

JR 산인본선 와치역 (JR山陰本線 和知駅) 부터 난탄시영 버스 오오노선 JR 와치역 (南丹市営バス大野線 JR和知駅) 에서 오오노 (大野) 까지 20분

자전로 오는 경우

교토 시내부터 ... 국도 162 호선 (国道 162 号線) 교토 슈산가도 타카오방면 (京都・鳳山街道高城方面) 을 북상하여 아가게 (安掛) 부터 오오노 (大野) 까지 15분

고속도로로부터 ... '소노베 IC (園部 IC)' 를 내리고 부도 19 호선으로 '히요시초우 (日吉町)' , '카구라사카튼네르 (神楽坂トンネル)' 를 넘어 '미야마초우 (美山町)' 까지 40분



facebook



미야마초우 오오노쿠



미야마목장동아리



난탄시영 버스 홈페이지

문의처 : 0771-75-0159 (오오노야 : 大野屋)

발행처 : 오오노쿠 / 협력 : 오오노쿠의 여러분, 난탄시 지역 부흥 협력대

오오노의 매력은!

아카와라 (赤原) 에는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오노전체가 내려다보이는건 개방감도 있고 기분이 좋아요.

토키와이케 (常盤池)

닌세이의 집 (仁清の家)

그다지 볼수 없는 띠 지붕을 당신의 눈으로 보세요!

학생 보이수

오오노의 매력은!

오오노의 반듯한 부도를 지나면 오오노에 돌아왔음을 실감합니다.

오오노 사람의 이야기①

수로부터 지형을 해독한다

용수로의 에 주목한다고 유라강의 수류기는 거꾸로 됩니다. 물줄기에서 계곡의 위치와 선상지의 확산등 이 장소의 지형 구조에 감성을 곤두세우고 걸어 보면 어떨까요?

오오노 사람의 이야기②

당은 지역의 커뮤니티공간

오오노야부터 북쪽에 가면 비사문당 (毘沙門堂) 과 텡망구 (天満宮) 가 있습니다. 지금 그곳은 아이들이 놀고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거나하는 즐거운 장소입니다. 훌륭한 당을 보러 가세요!

카야브키노사토 (かやぶきの里)

오오노야 (大野屋)

오오노야에서 산책 시작!

오오노야는 부도12호선 (府道 12 号線) 변에 있어 식품이나 일용품·오오노로 만들어진 야채 가게에서 지역의사람은 필수 쇼핑 스팟입니다. 주차장과 화장실 식당으로 꼭 이용하십시오.

오오노담 (大野ダム)

오오노야

오오노 (大野)

그리운 논 풍경

논의 본 여름 가을 겨울

봄은 모내기 끝난 수면에 푸른 하늘이 아름답게 비칩니다. 여름은 새로운 잎의 벼가 바람에 흔들리고 선명한 동경이 펼쳐집니다. 가을은 벼가 누렇게 익습니다. 겨울은 벼가 깎이고 아침이 되면 서리가 내려 일면이 환상적으로 빛납니다. 이러한 사계절의 변화를 오오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오오노 사람의 이야기③

유라강에 가라앉은 큰 바위

옛날 강변에서 의제를 달래는 말이 있었습니다. 코노바시 (小野橋) 을 헛닫고 떨어지고 버린 두 시체가 코노바시의 하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뒤에서 그 장소는 '모리부리 (守淵)' 으로 불리고 그 말의 영혼을 달래려고 그 이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호토게 이와 (仏岩)' 라는 큰 바위가 유라강의 구렁에 있습니다. 말이 불렀다는 노래는 지금도 미야마의 자장가로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부도12호선 (府道 12 号線)

카미오노 (上大野)

유라강 (由良川)

학생 보이수

다리 위는 바람의 빠지는 기분이 좋은 장소입니다!

마을 사람에 만나면 우선 인사해 보세요! 재밌는 정보가 들을지도 모릅니다!

학생 보이수

봄에는 논이 수면에 아름다운 경치가 비치고 느긋한 오오노를 즐길수 있습니다!

학생 보이수

울타리의 로프는 꼭 묶어주세요!

학생 보이수

유라강가의 도로 근처에는 6월경부터 반딧불을 볼수 있습니다.

코오노하시 (小野橋)

니지노코 튜넬 (虹の湖トンネル)

건너편 도로의 전망

모지가이치하시 (文字がいち橋)

울타리의 로프는 꼭 묶어주세요!

겨울에 여기부터 보는 풍경도 압권입니다!

학생 보이수

새소리가 들릴지도!

학생 보이수

- 01 그리운 길 약 15분
- 02 역사 길 약 30분
- 03 대자연 길 약 60분

이 그리운 길

약 15 분

텡망구 (天満宮)

경내 가운데 씨름판이 있어 여전에는 거기서 아이들의씨름대회가 열려 주민 모이는 곳이었어요. 주위는 초록으로 둘러싸이고 차분합니다. 근처에 있는 공원에는 미야마목장 사골의 학생들이 작성한 놀이기구들이 보관되어있습니다.



그리운 논 풍경

일본의 옛 풍경을 오오노에서 볼수 있습니다. 눈에 흐르는 바람은 상쾌하고 비록 도회에서 자랐다고 해도 민가와 논이 벌어진 풍경은 어딘가 그리운 생각을 품을거예요.



수면에 오오노의 자연이 비치고 너무 아름답다!



포장안되어있는 길은 바로 그리운 풍경!

리도 (里道)

마을 사람들이 만든 발두렁 길에서는 오오노의 자연을 가까이 접할수 있습니다. 앞이 안보이는 굽은 길은 하늘에 날아갈 것 같이 기분이 좋아할거예요.



오오노를 느끼는 3가지길

미야마목장 학생이 걸어서 봐주고싶은 곳을 코스 별로 픽업했습니다.

02

역사 길

약 30 분



렝조지 (蓮乗寺)



이미지 캐릭터의 "닌사마"야!

오오노의 절

오오노에는 니치렌슈(日蓮宗) 조도신슈(浄土真宗) 소토슈(曹洞宗)의 3개종파의 절이 있습니다. 세 절은 서쪽부터 순서대로 나란히하며 린서지(林昌寺)는 "우에데라" 쥘새이지(善西寺)는 "나카테라" 렝조지(蓮乗寺)는 "시모테라"로 불리고 있어 설날에는 지역의 사람이 신사에 참배를 간다고 합니다. 절에 가여 오오노의 역사 있는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재미있을거예요.



쥘새이지 (善西寺)



닌세이의 집 (仁清の家)

에도시대에 활약한 도예가인 노노무라닌세이는 이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오노쿠에서는 돗하다 이리머야두쿠리(入母屋造)의 카야부키 지붕(かやぶき屋根)을 볼수 있습니다. 닌세이는 "교야키이로에(京焼色絵)도자기"를 완성시켜 지금현재도 남는 수많은 도예작품을 만들어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린서지 (林昌寺)

눈에 둘러싸인 경치



부도12호선에서 유라강까지는 눈에 둘러싸인 해방감있는 경치가펼쳐집니다. 유라강변의 길에서는 6월경 부터 반딧불이 볼수 있습니다.

코오노하시 (小野橋)

유라강에 걸린 오오노·니지노나나하시(虹の七橋)의 하나입니다. 주홍색으로 칠해진 현수교부터는 자연 넘치는 오오노를 느낄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벚꽃이나 단풍을 볼수있는 포토스팟이 되고 있습니다.



모지가이치하시 (文字がいち橋)

조금 걸으면 보라색의 유라강에 걸리는 모지가이치바시가 보입니다. 지금은 주민들은 너무 사랑안하는 다리이지만 비경같은 분위기를 느낄수 있습니다.



다리의 마을 쪽에 있는 동물피해의 울타리는 꼭 잠그세요!

03

대자연 길

약 60 분



니지노코 터네루 (虹の湖トンネル)

오노바시를 건너 비탈을 오르면 길이 81 미터의 니지노코 터널이 보여웁니다. 노무 조용한 곳이며 손을 두드리면 소리가 아주 울립니다. 터널의 고요함속에 소리를 울려보지않겠습니까?

건너편 도로의 전망



띠지봉을 찾아보자!

니지노코 터널을 빠져나와 오오노쿠의 거리도 여기서 보면 마치나 디오라마 같은 느낌입니다. 눈을 거듭하면 띠 지봉의 집이 보입니다.

그리운 마음에 돌아가자

풍족한 자연과 따뜻한 사람이 사는 동네 오오노구

교토부 난탄시 미야마초우의 서부에 위치한다 오오노쿠는 풍부한 산들에 둘러싸여 유라강이 횡단하게 흘러가고 있어 계절의 자연을 즐길 수있습니다